

2018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경상북도 대구
- 대평지역아동센터



2019. 1

사실, 이화봉사단을 하기 전에는 다 짜여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수업만 하면 되는것인 줄 알았다. 교육봉사에 대한 흥미도 많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목을 알려주면 되는 프로그램인줄 알았는데 처음 봉사단에 합격하고 프로그램을 짜야한다는 말에 많이 막막했던 것 같다. 아이들 수준이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그램 짤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과 절대 함께 진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제안했고, 이것저것 수정을 많이 거치면서 귀찮고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시험기간에 모여서 피드백도 계속 받아야만 했고, 기획안도 계속해서 수정해서 내면서 봉사단 지원한 것을 조금 후회했던 적도 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날까지도, 봉사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막막했던 데다가, 친척들을 포함해서 주변에 아이들을 만나볼 기회가 하나도 없었던 나이기에 막연한 두려움만 컸던 것 같다.

아이들을 처음 만난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어색했고, 다른 팀원들이 나가서 밥 먹을 동안 레크레이션을 준비하는데 자꾸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바람에 도망치듯 센터를 나왔던 기억도 있다.

하지만,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우리에게 낯을 가리지 않고 준비해간 프로그램에 너무 적극적으로, 재미있어하면서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점점 신이 나기 시작했고 페이스팅팅을 할 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예뻐지기 시작했다.

이화봉사단 오티때만해도,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낯을 많이 가릴수도 있고,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다는 말에 많이 겁먹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많이 순수했다. 처음부터 우리를 너무 좋아해주었고, 낯도 하나도 가리지 않고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청 빠르게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사전에 기획했을때보다 배로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다. 첫날 진행한 '걸어서 세계속으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우리 팀원들은 고민에 많이 빠졌다. 고학년 아이들 몇몇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영어를 싫어하거나 프로그램을 따라갈 정도의 수준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진행할 영어프로그램이 많이 남았기에 고민도 많이 되었고, 우리는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간 밤마다 아이들의 수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획을 수정해나갔다.

그러면서 팀원들과도 많이 친해졌던 것 같다. 프로그램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던 그 과정이 많이 유익했던 것 같다. 아이들을 겪을수록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향이나 교우관계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많은 추억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올 여름방학이 되면 대평지역아동센터 이화봉사단에 또 지원할 것 같다. 아침에 센터에 들어가면 웃으면서 반겨주던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러 잠깐 방에 들어온 사이에도 못참아서 밖에서 관심을 끌고, 장난을 치고, 안기던 모습이, 꿈에 나올 정도로 좋은 추억이 되었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놀아주고 피곤한 상태로 그 다음날 회의를 하면서 힘들었어도, 마지막날, 아이들에게 보여줄 동영상을 만들고 편지를 쓰면서 밤을 새고 그 후 일주일동안 체력이 복구가 안돼 힘들었어도, 그모든걸 잊게 해줄 만큼 다시 한번 꼭 하고싶은 경험이었다.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그 순간들을 즐기고 행복해하기를 바라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시간들은 아이들에게도, 이화봉사단 단원들에게도 모두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친구들이 한 공간에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어려워 누군가에게는 쉽고 유치한 반면 누군가에게는 어려울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막상 지역아동센터에 가니 학년에 상관없이 이화봉사단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모두가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저학년이 대부분이어서 프로그램이 저학년 위주로 짜여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학년 친구들이 유치한 내색 하지 않고 잘 따라와 준 점이 너무 고맷다. 또 밝고 해맑은 아이들 덕분에 금방 새로운 공간에 익숙해지고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그 에너지로 인해 나 또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신나게 5일을 보낼 수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헤어짐이 아쉽고 슬펐는데 한 친구가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대신 좋았던 기억들을 마음에 간직하면 된다' 고 했던 것이 잊히지 않는다. 때론 15년은 더 오래 살았던 나보다도 더 성숙하고 생각이 깊어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다.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화봉사단 활동을 생각해보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 또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서로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화봉사단 활동이 더욱 값지고 보람차다.

대평 지역 아동센터에서의 4박5일

방학을 맞아 의미 있고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지원한 대평 지역 아동센터는 대구 외할머니께서 사는 곳과 가까웠다. 방학 때마다 찾아간다는 약속을 이번에는 꼭 지키리라 다짐했다.

하루 전 미리 대구에 도착해서 외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봉사 당일 외할아버지가 바래다 준 대평지역아동센터에 내렸다. 아이들 몇몇이 창문을 열고 "이화여대다!"하며 외치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았다. 자칫하면 아이들에게 휘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첫 프로그램부터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 당황했다. 별책을 하거나 준비한 제시어를 하나도 못 맞추거나 불만을 표하는 몇몇의 아이들. 그래도 조원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즉각 규칙을 만들거나 시간을 늘리거나 하는 등 유동적으로 프로그램 세부사항을 조절해가며 성공적으로 첫 하루를 마쳤다. 이때부터 생각했던 대로 순조롭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진 않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했던 것 같다. 둘째, 셋째날도 계획한 내용과는 약간씩 다르게 진행되었다. 생각보다 아이들의 영어교육수준이 낮았고 놀이를 통한 영어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을 융합시키거나 프로그램을 추가, 제외시키는 등 저녁마다 회의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짰다.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던 4박5일이었던 것 같다. 마지막엔 아이들이 행여 상처를 받을까 기분 좋은 표정으로 떠나려 했지만 참기가 힘들었다. 다시 와달라는 아이들의 물음에 답변해주지 못한다는 게 미안했고 후에 주기적으로 봉사자들이 아이들 마음의 빈자리를 계속 채워주길 바라며 떠났다. 이번 봉사를 통해 우리는 잠깐이었지만 평생을 봉사를 하며 지내는 센터 원장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음을 깨달았고 평소에도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화봉사단으로 선발이 된 후, 이화봉사단을 경험해 본 동기와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겁을 많이 먹었다. 요새 아이들은 언어 사용도 거칠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기에 난이도를 조절하기도 매우 어려웠다. 회의와 준비를 하면 할수록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니 이러한 걱정을 많이 덜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활동에 관심을 주며 잘 따라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라 굉장히 서툴고 우왕좌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센터에 가면 "선생님, 어제는 이런저런 활동을 했었죠? 너무 재미있었어요! 오늘은 뭐할지 기대돼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니 더욱 힘이 나고 매우 고마웠다. 평소에 아이들과 놀아줄 기회도 없었고, 놀아줄 자신도 없었는데 너무나도 좋아해 주며 일주일이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아이들에게 큰 감동을 받기도 했다. 마지막 날 헤어질 때는 수차례 이화봉사단과의 이별을 경험한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도 이러한 이별의 경험이 처음인지라 우는 아이들을 보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는데, 슬픔을 묵묵히 견디며 어른스러운 말을 건네주는 몇 아이들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으며 그 아이들의 태도를 배우고 싶었다.

나는 2018년 살롱 드 점프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이화봉사단의 존를 알게 되었다. 평소에 교육봉사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겨울방학에 캠프가 진행된다고 해서 이화봉사단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이화봉사단에 참여하기 전에 거주 지역 인근 중학교에서 진로캠프 멘토로 활동했고, 그 외에도 나보다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등 멘토 활동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봉사단 활동도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은 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전에 멘토로 활동한 캠프에서는 단지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인솔하는 활동이었다면,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은 캠프동안 진행할 모든 프로그램을 봉사단이 직접 기획하고 구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어떤 활동을 해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워할지 팀원들과 많이 고민했다. 사전에 센터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아이들의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아이디어를 냈고, 여러 조건에 맞는 아이디어를 토론을 통해 선택해 구체화했다.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어떤 아이디어가 더 적절한지 팀원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나눴다.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편견을 심어주지는 않는지, 상품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지, 어떤 차별이 있지는 않은지, 활동 시간이 산만해지거나 체력을 많이 소모시키지는 않는지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 간단할 줄 알았던 프로그램 기획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오랜 시간동안 꼼꼼하게 점검하며 진행해야 했다. 캠프가 겨울 방학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기중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2학기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 기획 준비를 해야 해서 많이 바쁘고 힘들었다.

그리고 나는 팀 리더였는데, 몇 달간에 걸친 장기간 팀 프로젝트 리더로 처음 활동해 보기도 하고, 평소에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로 활동한 경험이 없어서 리더 활동이 미숙하고 어렵게 느껴졌다. 어떤 부분에서 티를 이끌어야 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잘 몰라서 내 스스로가 답답하기도 하고 리더 활동을 어려워했던 기억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리더를 잘 따라와주고 함께 열심히 활동한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앞서 이화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점을 많이 늘어놓았지만, 이화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좋은 점도 많았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팀원 간 다양한 의견 공유가 이루어졌고, 봉사를 위해 협동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무엇보다 팀원들과 함께 만든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집중하며 즐겁게 프로그램에 따라줄 때 큰 보람을 느꼈다. 4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매일 매일 큰 기쁨을 느꼈다. 한 친구는 한 영상 매체의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하고, 다른 친구는 화가가 되고 싶어하고, 또 다른 친구는 체육을 좋아하는 등 아이들 개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즐거웠다. 만들기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이야기하고 직접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 수업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막상 수업을 진행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아이들은 이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기대 가득한 눈동자로 물어보고, 우리가 아침에 센터에 도착할 시간에 창문으로 우리가 오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센터 앞에 도착하면 큰 목소리로 "선생님들 왔다!" 이야기하며 기뻐하기도 했다. 만들기 수업이 여러 번 있었던 날은 우리도 아이들도 체력적으로 힘들어했다. 하지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만들기를 끝까지 마쳐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대견한 마음이 들었다. 넷째날 캠프가 끝나갈 때, 아이들이 선생님들 내일 가냐며, 내

일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을 때는 너무 아쉽고 슬펐다. 대평지역아동센터에 이화봉사단이 몇 번 다녀갔고, 처음 이화봉사단이 다녀갔을 때는 멘토 선생님과 아이들이 큰 정이 들어서 마지막 날에 많이 울고 아이들이 밥을 먹기를 거부할 정도로 슬퍼했다고 들었다. 그 이후로 이화봉사단이 여러 번 다녀가면서 아이들이 정든 선생님과 헤어질 때 슬퍼해도 감정 조절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센터 선생님께서도 들었는데, 헤어짐에 담담한 아이들의 태도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 같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아이들하고 정이 들었고, 결국 마지막 날에 활동 사진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을 보면서 내가 먼저 눈물을 쏟았던 것 같다.

이번 겨울에 국내교육봉사에 참여하면서, 협력을 통한 장기 팀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이들과 4박 5일을 붙어 지내면서 어떤 점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적절하거나 부적절한지를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아이들의 체력적인 면을 고려하고, 아이들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팀 리더로 활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경험함으로써 다음 리더 활동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번 활동을 바탕으로 다음 이화봉사단 교육봉사에 참여하고 싶다.